Suda English 수다형어

www.sudaenglish.kr

Suda: chatter, prattle (Chat away with Suda English.)

특허 듣기 학습법 (특허 제 10-1054052호) 특허 말하기 평가학습법 (특허 제 10-1318377호)

영어 학습이 어려운 이유

인간은 소리를 듣고, 기억하고, 흉내를 내는 타고난 생물학적 능력이 있다. - 바로 당신의 언어능력이다.

인간은 타고난 언어능력 때문에 영어를 잘 하기 힘들다?

초기의 영어 학습 과정은 적은 숫자의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으로부터 시작되고, 대부분 문장을 외우면서 학습을 진행한다. 그러나 학습 레벨이 올라가면, <u>외우기가 힘든 긴 문장들이 나오게 되는 데, 대부</u>분 사람들이 영어 학습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문장이 길어지면, 문장을 읽고, 해석하고, 2번 내지 3번 들어보면 잘 들린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 기억하고, 순간적으로 흉내를 낼 수 있는 타고난 언어능력 때문이다. 기억은 오래 가지 않고, 잘 들린다는 착각으로 충분한 듣기 연습을 하지 않고, 결국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외국어 학습은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외워야만 하는 과목인가?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이용하여 뇌 속에 저장된 소리 단어를 0.3 초 내에 찾는 것이고, 0.3초 내에 찾아지면 알아 듣는 것이고, 0.3초 내에 찾지 못하면 알아 듣지 못하는 것이다.

문장내의 단어들을 듣고 저장된 뇌 속의 단어를 0.3초 내에 찾는 훈련 이런 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문장의 단어들을 하나 하나 들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소리를 듣고 뇌 속에 저장된 소리를 찾는 것은 뇌의 운동이며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와 같은 운동이다. 올바른 방법으로 듣기 말하기 훈련을 하다 보면 저절로 듣기와 말하기가 된다.

모국어가 어떻게 습득되는지, 어떻게 듣고 말하는지, 영어는 어떻게 뇌 속에 기억되는지 언어와 뇌의 상호작용을 알면 영어의 길이 보인다

언어는 어떻게 습득되는가?

언어는 소리로 단어 네트워크를 쌓아간다. 글자가 없었던 시절에도 인간은 소리를 듣고, 소리의 개념과 이미지를 뇌 속에 단어 네트워크로 쌓아가면서 자기의 언어, 모국어가 형성된다.



아기가 배고파 울 때 누군가 다가와서 '맘마'라는 <u>소리를 내며(듣기)</u> 무언가 맛있는 것을 입에 넣어주던 것으로 기억하게 된 후



'맘마'라는 소리를 들으면 먹는 것의 개념으로 알아듣는다.



배고플 때는 울기만 하지 않고 '맘마'라는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며 말하기가 된다



인간이 태어나 자라면서 모국어를 습득해 나가는 과정은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단어 네트워크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돌이 지나면서 모든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은 완성되고 대뇌는 계속해서 발달한다. 이때부터 왕성하게 말을 배우는 시기로 들어간다. 이제 모든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대뇌에서 이미지화할 수 있고, 아주 간단한 이미지는 범주화가 가능해 개념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엄마가 반복해서 들려주는 소리가 연결되어 '이미지-개념-소리'의 단어 네트워크 동체효과가 생기기 시작한다.

2세부터 5세까지는 대뇌의 수초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감각, 운동, 기억능력이 향상되고, 더 많은 음절로 된 더 많은 장면이미지로 구성된 이미지와 복잡한 개념들을 단어의 소리로 뇌 속에 저장하게 된다. 단어 네트워크 동체효과가 강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3~4년이 지나 5세나 6세가 되면, 거의 모든 아이들은 예외 없이 소리-이미지-개념의 '단어 네트워크 동체효과'의 기본 틀이 완성된다. 따라서 누구나 말을 듣고 할 수 있게 되는 된다. 기본 틀이 완성되면 이후부터는 단어의 수를 추가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이다.

들리고 안 들리는 이유



되 속에 저장된 단어는 소리로 뇌를 자극하여 단어 이미지를 기억해낸다 뇌에 저장된 하나의 단어 이미지를 뇌에서 파악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0.3초고, 하나의 단어를 소리 내는 데 0.3초가 걸린다.



듣는 것은 소리를 듣고 똑같은 소리의 이미지를 자신의 뇌 기억에서 꺼내서 받아보는 것이고



말하는 것은 뇌 속의 이미지를 <u>소리로</u> 꺼내서 던지는 것이다



듣고 말하는 것은 소리로 뇌를 자극하여 순식간에 일어나는 뇌의 운동이기 때문에 외국어 공부의 핵심은 바로 소리가 들어있는 공부를 하여야 하고, 인간은 소리를 듣고, 기억하고, 흉내를 내는 타고난 생물학적 능력, 바로 언어능력 있다. 이런 인간의 언어능력은 듣기를 훈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해를 하여야 한다.

단어 네트워크가 생성되지 않은 단어를 들었을 때는 안 들 린다



인간은 소리를 듣고, 기억하고, 흉내를 내는 타고난 생물학적 능력이 있는 데, 그것이 바로 언어능력이다.

이런 언어 능력으로 소리는 들어도 그 소리의 뜻은 모른다. 소리의 불은 켜져도 이미지와 개념의 불이 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개의 단어 중 한 개의 단어만 단어 네트워크에 쌓여있는 경우



'아가'라는 소리는 이미지와 개념의 전구에 불이 켜지면서 알아듣지만, '예쁘다'의 소리는 들려도 '예쁘다'의 뜻은 모르는 상태를 보여준다

두 개의 단어 모두 단어 네트워크에 쌓여있는 경우의 네트워크의 모습



'아가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두 단어 모두 이미지와 개념의 전구에 불이 켜지면서 그 말뜻을 알아듣는 상태. 글자는 아직 안 배웠으므로 글자 전구는 불이 안 켜진 상태이다.

글자를 익히는 경우의 단어 네트워크 모습



아기가 커서 초등학교에 입학해 한글을 배웠다. 한글을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읽을 줄 아는 상태에서 아이가 엄마로부터 두 단어로 이루어진 "아가 예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가'와 '예쁘다'의 두 단어 모두 이미지와 개념의 전구에 불이 켜지고, 글자의 전구에도 불이 켜진다.

외국어는 어떻게 뇌에 저장되는가



소리로 형성된 모국어 단어 네트워크

인간은 태어나 자라면서 소리를 듣고, 소리의 개념과 이미지를 뇌 속에 단어네트워크로 쌓아가면서, 자기의 언어, 모국어를 형성한다.

글자가 추가된 뇌 속의 단어 네트워크



글자가 없어도 인간은 소리로 소통을 할 수 있었고, 글자를 배우면서 소리로 형성된 모국어 네트워크에 글자가 추가된다.

뇌 속의 단어 네트워크에 글자가 추가된 것처럼 외국어 소리도 추가된다



소리로 형성된 모국어 네트워크에 모국어 글자가 추가되었듯이, 외국어도 추가될 수 있다.

이미 형성된 모국어 네트워크에는 외국어 소리, 외국어 글자가 별도로 추가될 수 있다.



소리로 형성된 모국어 네트워크에는 외국어 소리와 글자를 별개로 추가될 수 있다. 소리 없이 글자만 따로 추가된 경우에는 외국어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이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외국문자를 배우는 꼴이다. 따라서 외국어를 배울 때는 반드시 소리를 먼저 모국어 네트워크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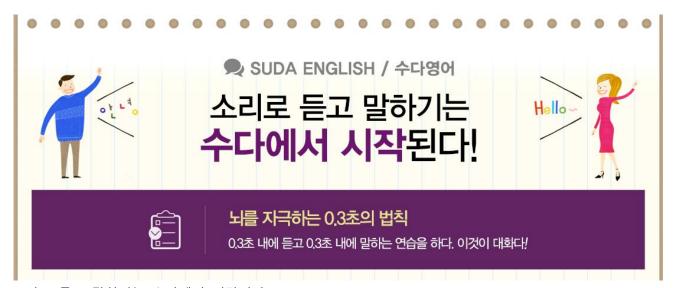
영어도 모국어가 습득된 방법으로 습득된다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영어 학습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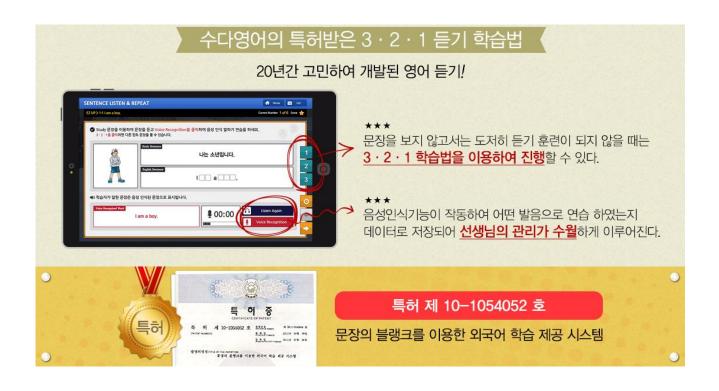


0.3초 내에 일어나는 듣기와 말하기는 어떤 기술로 습득하느냐에 달려있다.





소리로 듣고 말하기는 수다에서 시작된다 뇌를 자극하는 0.3초의 법칙 0.3초 내에 듣고, 0.3초 내에 말하기 연습을 하다. 이것이 대화다!



문장말하기



모국어 단어 네트워크에는 다른 사람의 영어 소리가 아닌 자기 영어 소리가 접목되어 있어야 한다. 듣기능력을 높이는 방법이고, 말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입과 혀의 운동이다.



특허 제 10-1318377 호

외국어 말하기 평가

영어를 습득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



수다영어는 소리를 통한 단어습득방법과 특허받은 듣기학습법으로 하루 한 시간 훈련으로 월 100~ 200개의 단어를 완전한 소리로의

모국어 단어 네트워크 동체에 접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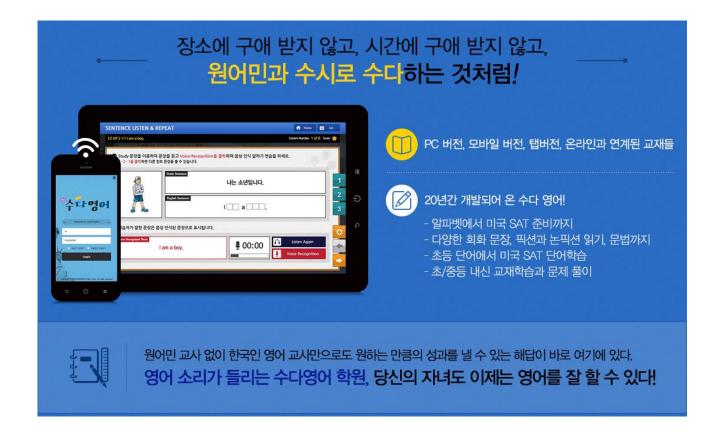
모국어로 한국어를 배운 아이가 6~7년 걸려서 습득한 2,000여 개의 소리단어를 1년에서 2년 내에 영어소리단어로 습득할 수 있다.

이미 잘 갖추어진 자기의 모국어 단어네트워크의 이미지와 개념에 영어 소리단어와 영어 글자단어만 추가해 새로운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면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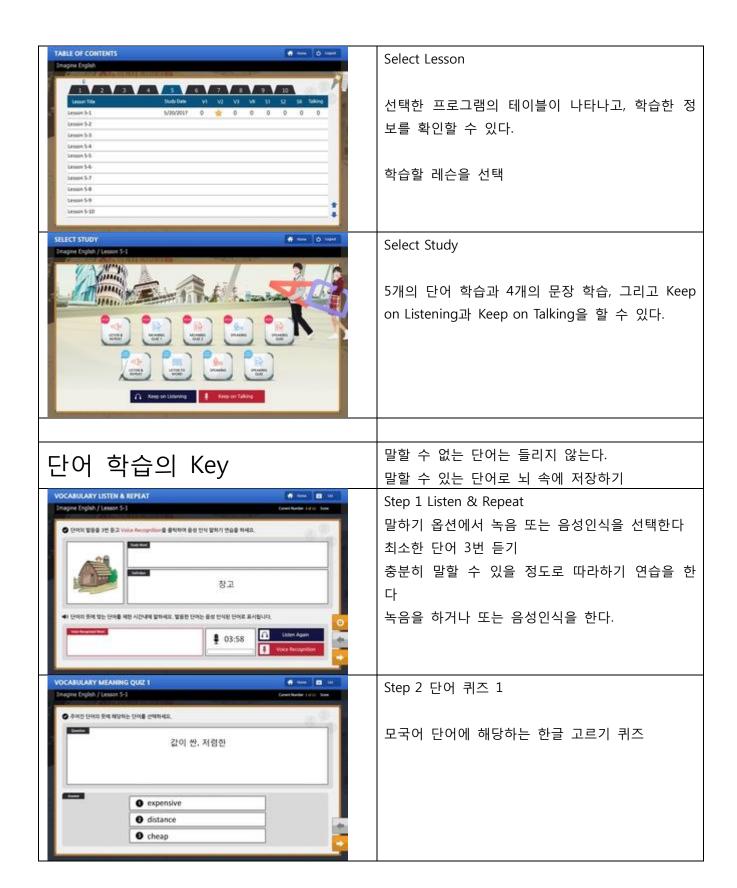
수다영어는 보다 효과적으로 자기의 모국어 단어 네트워크에 영어소리 단어 접목을 시키고, 0.3초 내 뇌 속에 저장된 이미지를 소리로 꺼내기 훈련을 통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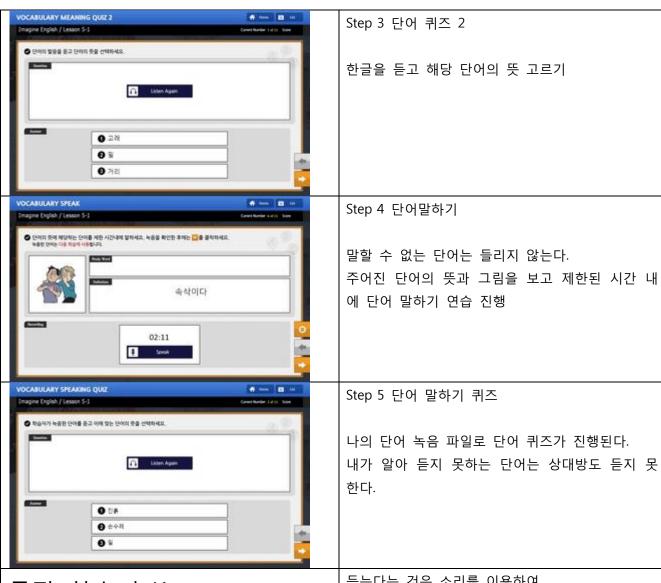
가장 빠른 영어가 습득되는 획기적인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다.



Getting Started







문장 학습의 Key

문장내의 단어들을 듣고 저장된 뇌 속의 단어를 0.3초 내에 찾는 훈련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이용하여

뇌 속에 저장된 소리 단어를 0.3 초 내에 찾는 것 이고,

0.3초 내에 찾아지면 알아 듣는 것이고,

0.3초 내에 찾지 못하면 알아 듣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문장의 단어들을 하나 하나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문장을 보지 않고, 귀로 듣고,

들리는 대로 입으로 따라 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저절로 듣기와 말하기가 된다.

따라 하기가 너무 힘든 긴 문장은 특허 듣기 학습법 321 학습을 이용한다



Step 6 Listen & Repeat

옵션에서 녹음 또는 음성인식을 선택한다 문장을 보지 않고 최소한 문장 3번 듣기 문장을 보지 않고 듣고 따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따라 하기 연습을 한다 따라 하기가 힘든 긴 문장은 321 버튼을 클릭하여 힌트를 사용한다

녹음을 하거나 또는 음성인식을 한다.

Step 7 Listen to the Word

기억된 학습한 문장일지라도 집중하여 듣기 연습을 할 수 있고, 문장 속의 단어듣기 연습을 한다.

문장내의 단어 하나 하나를 집중하여 듣는다. 문 장내의 단어들의 그림을 선택한다. 정답은 없을 수도, 몇 개 일수도 있다. 잘 못 선택하였다면 Re-Set을 클릭한다. 다시 듣기 위해서는 Listen Again을 클릭한다.



Step 8 Spea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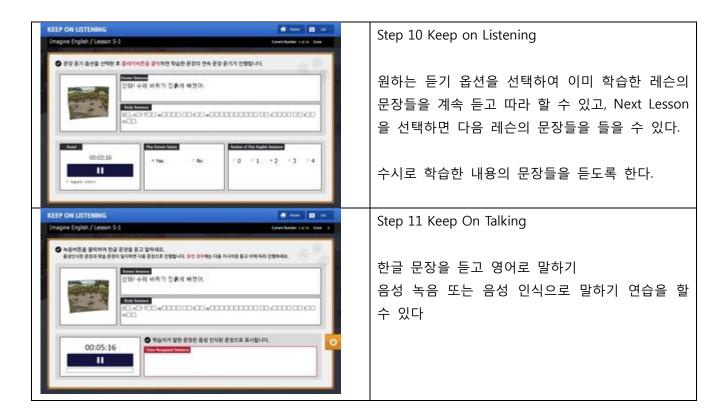
주어진 힌트를 이용하여 문장을 녹음한다.



Step 9 Speaking Quiz

학습자의 녹음 파일로 퀴즈가 진행된다. 올바르게 발음되지 않은 문장은 퀴즈를 풀 수 없다.

문장내의 단어 하나 하나를 집중하여 듣는다. 모국어 단어 네트워크에 소리 접목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프로그램의 종류

Basic Program	Alphabet	알파벳
(앱버전은 현재 개발 중)	Phonics	Vowel, Blend, Consonant 학습
	Groupword	그룹별 단어 학습
Listen & Reading	EzUp	기초 문장 학습
	Primer	Phonics와 EzUp 복습 개념의 스토리 읽기
	EzStory	명작 동화 읽기
	Primer Plus	미국 초2 수준 읽기
	Diary	일기 쓰기 문장 학습
	Non-Fiction	Non-Fiction 읽기를 통한 단어 실력 증대
	Reading Plus	Non-Fiction과 재미있는 스토리
	Aesop Fables	이솝우화 읽기
Speaking	eZConversation	초등 3 회화
	EzTalk 1	초등 회화
	Talk English	초등 회화
	Animation English	초등 4-5년 회화
	Lara Story	미국 생활 이야기 읽기와 회화 초등 5-6
	Travel English	초등 5-중등 1 여행 회화
	Imagine English	그림을 묘사한 문장으로 표현력 증대
Vocabulary	초등 단어부터 토익 단어 까지	
Junior	All That Junior 4	중1 복합 교재
	All That Junior 3	중2 복합 교재
	EZListening	특목고 대비 듣기

F	HPStory	한글 스토리를 영어로 번역한 문장들로 쓰기
		학습에 도움 목적
N	Non-Fiction 2	Non-Fiction 읽기를 통한 단어 실력 증대
E	EZTalk 2	중등 회화 프로그램
L	_ove Bible	New James Version을 통한 영어 학습